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대학인



윤 경 은
서울여대 총장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유난히도 험겨웠던 1998년을 마감하며 맞이한 새해라 더욱 큰 기대로 우리의 희망을 키워 보는 한 해이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고 험악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며 허황된 꿈을 꾸었던 대가로 IMF 충격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자율이 없으면 타율이 온다는 슬픈 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의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광범위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느라 정신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사회에서 1998년의 중심 화두는 모집단위의 광역화 문제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경제논리가 대학교육개혁에 도입되면서 '정의 없는 소비자 중심주의', '철학 없는 경쟁력 지상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경쟁논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작용하여 금년에도 계약제 임용, 업적평가제 도입과 그에 따른 연봉제 확대 실시의 문제가 예견된다.

교육개혁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교육부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대학에게 반강제로 학부제를 밀어붙인다고 항의해야 하는가? 사실상 학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식구조의 문제로, 개인의 적성과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전공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몇몇 인기학과로 대부분의 학생이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인재'는 연구하는 교수와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대학에서 양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모집단위 확대, 상대평가제, 계약제, 업적평가,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부를 타타기 전에, 개인과 사회, 대학구성원들의 인식과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면우 교수의 “폐러다임을 바꾸자”라는 모 일간지 시론에서의 제언이 우리 대학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의 산업구조는 낡은 폐러다임이며 이는 마치 도시가스의 출현을 무시하다가 사라진 구공탄집, 캐시밀론 이불을 등한시하다가 사라진 솜털집 같다. 솜털집의 투명경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외자본 유치가 잘되겠는가. 구공탄집과 솜털집이 빅딜을 하면 도시가스와 캐시밀론 이불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유연하지 못한 사고체계를 각성시키고 있다. 세상이 정보화, 세계화의 사회로 변하는 와중에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대학에서 역동적으로 창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우리가 과연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교수들은 지식인 특유의 비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구성원들도 아직 구공탄집과 솜털집을 어떻게든 보완하면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끌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물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통찰하며 감성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관계를 중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속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사물을 논리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과, 감성적인 인간 관계에서 벗어나 계약의 사회에 익숙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많은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치열한 세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의 논리에 좀 더 친숙해져야 할 것 같다.

산업사회 발전 단계에서 대학의 기여도가 참으로 컸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마당에서 우리들이 예전과 같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대학이 21세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반문하여 본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이 소수의 엘리트 양성에 달려있었으나 21세기는 다양성이 가치를 지니는 세계이므로 다수 국민의 지적 향상만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길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 정보와 경영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중추세력이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두뇌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제 는 기존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과 자질 못지 않게 정보망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나아가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각자의 다양성이 고립적으로 분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힘으로 상승, 고양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법을 체득하여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학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창의력, 유연성, 다양성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새로운 흐름과 학문의 성과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생각하여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를 지금과는 낯선 사회로 인도하고 있다. 원거리 강의, CD, 비디오 테이프 등의 매체 이용으로 제택수업이나 직장수업의 확산이 촉진될 시점에서 대학이 오늘날과 같이 기존지식의 전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학 캠퍼스의 존재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정보망을 통한 몇몇의 명 강의자만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혼란스러운 미래의 예견과 함께, 이제 우리 대학은 지역적인 제도의 변화 등을 비판하는 데 우리의 힘을 낭비하기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토론이 대학 내에서 활발히 시작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비판력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력”이라는 비판에 떳떳이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영**